

장성군, 장애인 문화체험 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장성군이 장애인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선정이 유력시 되고 있는 업체 사장과 군청 관련업무 공무원들간의 친밀도가 높다는 점이다. 군은 4,000만원 (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오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키로 했는데 입찰을 통해 여행업체를 선정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장성군의 방침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4000여만원 예산 들여 내달 전국 일원 탐방키로

입찰경쟁은 '하나마나'...업체 순차적 배분해야

장성에는 몇 곳의 업체가 있으나 군의 이같은 방침에 의해 입찰을 통해 경쟁이 이뤄질 경우 특정업체의 선정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형편이다.그도 그럴 것이 한 개 특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해 입찰에 응모를 하나마나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관내 모든 업체

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남도내 여수시와 영광·함평·화순·담양군 등은 입찰공고 방식의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장성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의 한 관계자는 "장성군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입찰공고 방식은 공정을 빙자한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같은 영세 업체들은 군의 사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이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무안군 "백가지 맛 아열대과수 맛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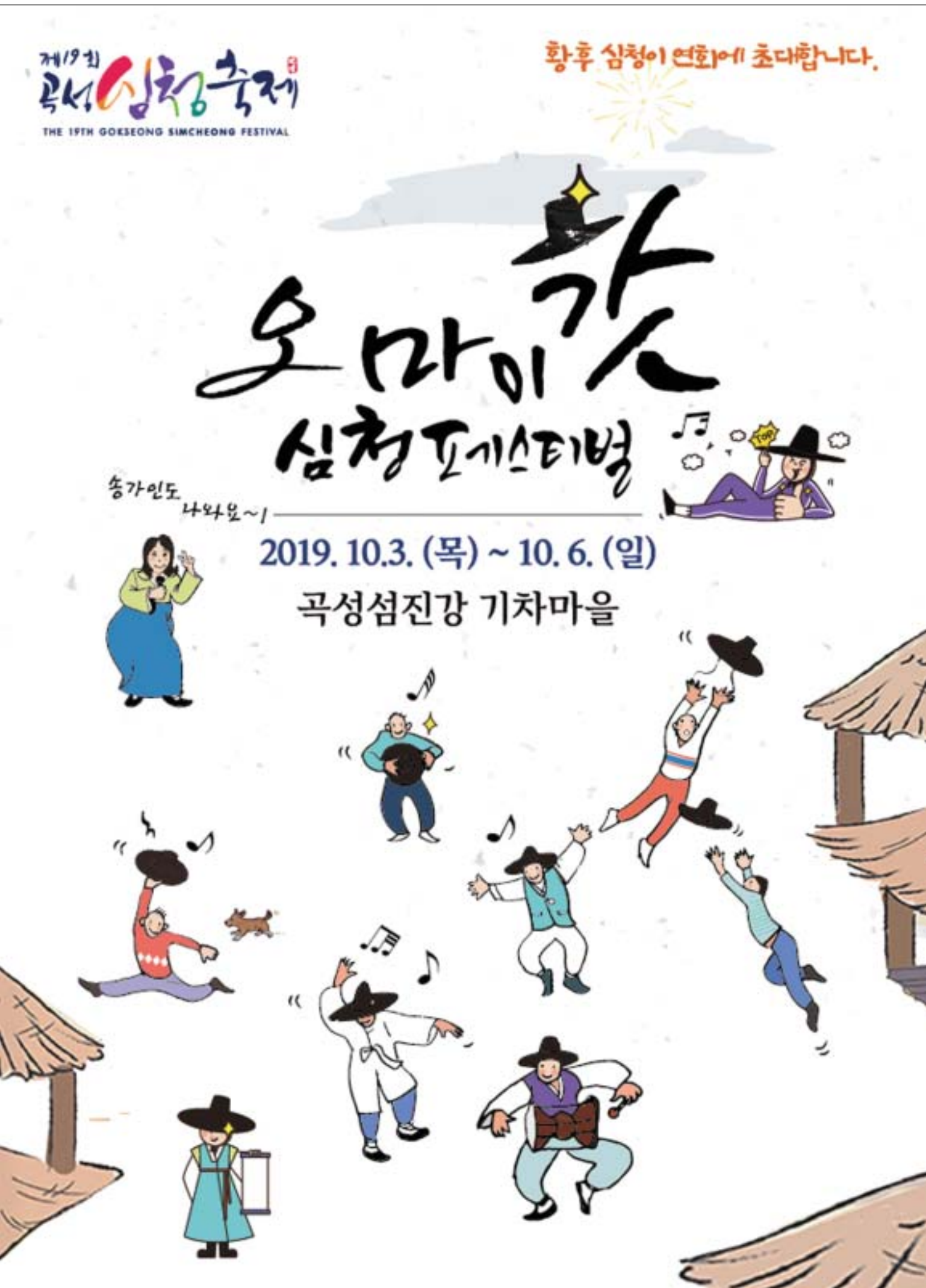
아열대과일 백향과 본격 출하

무안군은 아열대과수인 백향과(패션프루트)가 본격적으로 수확돼 소비자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무안군 운남면 이규동 농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설 하우스에서 백향과

0.3ha를 연2기작 재배해오고 있으며, 1년 차 등해 및 경험부족을 극복하여 3년차인 지난해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 귀농정착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규동 농가는 "올해엔 10톤 수확으로 8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농가에 전파 및 작목반 구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향과는 브라질원산 아열대과수로 새콤달콤 등 백 가지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백향과로 불리며, 과즙 100g당 10.4g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곡성군, 폐교에 100억 규모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산업' 선정...오곡초에 내년부터 3년간

곡성군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1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폐교된 오곡초등학교에 '복합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의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인 "지역성장 전략산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총 4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24건의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곡성군은 폐교된 오곡초등학교를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곡성스테이션 1928'을 핵심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스테이션 1928'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스테이션'과 오곡초등학교가 개교한 해인 '1928'을 조합한 것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교육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군은 학교 건물을 숙박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지역특화자원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곡성군의 핵심 시책인 교육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생학교, 농촌학교, 미디어학교 등을 운영하고 청년협동조합 등 시설운영 조직을 육성하게 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지난 7년간 지역민과 함께 해 온 오곡초등학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차마을과 산림, 장미, 로즈카카오 등 특화자원을 연계해 지역재생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스테이션 1928 사업을 통해 곡성군이 교육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인구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문화와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꽃무릇 큰잔치' 함평 해보면 용천사 일원서 개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하나

'꽃무릇 큰잔치'가 21~22일 함평 해보면 용천사 일원에서 열린다. 꽃무릇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용천사 인근은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하나로 규모가 60여만 평에 이른다. 올해 20번째 맞는 꽃무릇 큰잔치는 21일 오전 퓨전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올린다. 개막식 후엔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민화합 한마당과 변민 다듬터공연, 오후엔

마을별 장기자랑과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22일에는 판소리 공연을 비롯해 7080 콘서트, 꽃무릇가요제 등이 진행된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의 용천사 인근은 꽃무릇 용단으로 뒤덮인다"며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